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제3098호 www.metroseoul.co.kr

방북마치고 돌아온 현정은 회장 금강산관광 16주년 기념식을 위해 18일 오전 방북했던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같은 날 오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와 조건식 현대아산사장과 함께 취재진에 방북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측과 공동 기념행사를 열었고, 연내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자는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증세로 복지재원 마련 재계 반발

issue&view

법인세 인상 공방

야, OECD 평균의 60% 그쳐… 25%까지 올려야

"기업실적 바닥인데…" 여당도 조세전가 우려 난색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기업 실적이 안 좋은데 법인세 인상은 무리다.""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은 필수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가 정치권에 이어 재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가장 확실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큰 법인세를 올려 복지재원을 충당하자는 주장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야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선진국 법인세율의 경우 미국 39.1%, 일본 37%, 프랑스 34.4%, 독일 30.2%이고, 조세부담률을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60%"라며 "한국의 법인세율을 2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은 정부의 법인세 정책을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며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을 필두로 한 기업단체는 18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네 가지다. 먼저 법인세 인상논의를 하기에는 최근 실적이 나쁘다는 것. 국내 간판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하고있으며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부지기수다.

실제 주요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악화 추세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과세가 이미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이다.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세게 잡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해외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 추세며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인하 또는 최소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율인하뿐 아니라 주요국들은 투자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주요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세율인하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OECD 평균 7.2%p 인하하는 동안 한국은 6%p 인하에 그쳤다.

GDP와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상위권일 뿐 아니라 증가추세다. 아시아 법인세율을 보면 중국 25%, 대만·싱가포르 17%이며 한국은 22%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미국, 일본과의 비교 자체가 무리다. 이들 국가와 한국의 경제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 덩치가 클수록 세부담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내 사정상 '투자여건 조성→법인소득 증대·고용확대→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에만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다"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축소와 상품가격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나고,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고 반박했다.

너무 앞서가는 후강퉁 마케팅

기자 수첩
김 현 정
<금융시장부 기자>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간 주식교차거래를 허용한 '후강퉁'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모처럼 투자기대감이 높은 시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앞다퉈 관련 세미나를 열고 투자열기를 북돋는 등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중국 자본시장이 아직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후강퉁 역시 투자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 변동으로 인한 손실 우려가 있다.

위안화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는 후강퉁의 특성상, 위안화 유동성이 부족해 환 변동폭이 커질 경우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식뿐만 아니라 외환에 있어서도 자금 흐름이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나라다.

물론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 위안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종 '첫' 시도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 된다.

중국의 위안화 시장은 역내 본토시장과 홍콩 역외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내 증권사들은 홍콩을 통해 본토시장에 투자하게 된다.

홍콩이 후강퉁 출범과 발맞춰 위안화 일일 환전한도를 없애는 등 제반요건 개선에 나섰고 역외 위안화허브에 범중화권은 물론, 서울과 캐나다, 도하 등이 최근 포함됐거나 추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금융당국에서도 위안화의 환차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증권사 영업점의 후강퉁 판매행위를 불완전판매로 간주하겠다며 시작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 원-위안화 시장 개설처럼 한국만의 차별화된 후강퉁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안전처 첫 장관 박인용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장·차관급 11명 인사
사퇴 거론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명단서 빠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 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장관급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11명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내정됐다.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위 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은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왼쪽). 이근면 인사 혁신처장 내정자(오른쪽). 정재찬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아래)

또 통일부 차관은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익위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국민익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박인용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과 제3함대 사령관,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합참차장 등 해군과 합참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합동작전 전문가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내정자는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과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을 역임한 민간 기업 인사 전문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거래위 하도급국장과 경쟁국장, 카르텔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상률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숙명여대 영문학 교수로 숙명여대 사회봉사실장과 대외협력처장, 대교협 국제화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의 표명설이 돌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임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 대변인은 "그렇게는 볼 수 없다"며 "이번 인사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해병대 호국 합동 상륙훈련 2014 호국합동상륙훈련이 열린 18일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작전 수행 중인 독도함 비행갑판에서 해병대 상륙군들이 공중돌격을 위해 기동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반기문 흔들기, 국익 도움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 "여든 야든 왈가왈부 말고 모실 마음이 있으면 가슴에 간직했다가 대통령 선거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3년 뒤)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민심에 따라 불림을 당하면 괜찮지만, 유엔 가서 잘하는 분을 들었다 놨다 하면 그 분도 사람인데 마음이 안 흔들리라는 보장이 없고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총장이 대선에 야당 후보로 나설지에 대해 "밖에서 여니 야니 하는 것은 부질없는 논란"이라며 "만약에 나온다 하면 반 총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방전 가열

여 "공짜인 것처럼 국민 현혹" vs 야 "본질 호도… 싸게 공급"

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란 말이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정책을 '무상 포퓰리즘'의 범주에 포함해 연일 비판하자 새정치연합은 18일 "공짜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새누리당도 "야당이 일부러 모호하게 얘기해 공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우선 순위를 준다는 의미라고 강조, "새누리당이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이 오히려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혼부부에 집 1채'라는 문구를 쓴 데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고의로 '신혼부부에 집 1채'라는 문구를 썼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봐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공짜로 줄 것처럼 선전했던 새정치연합이 이제 와서 공짜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겠다고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가 '또 무상시리즈'는 비난이 일자 슬쩍 말을 바꾸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세월호3법' 국무회의 의결… 오늘 공표

●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세월호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이 법안들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CCTV 사찰 논란' 롯데 프런트 심상정 면담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CCTV 선수 사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팬들에게 존경받는 구단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를 방문한 롯데 야구단 이창원 신임 대표이사와 이윤원 단장 등에게 "프로야구 선수들은 구단 소속 선수를 넘어 국민이 사랑하는 공공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길재 통일장관 대북정책 협의차 내달 방미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 협의 등을 위해 다음달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류 장관이 내달 8일에서 14일 사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미국 당국자들과 주요 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거되는 해양경찰청 간판 1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간판 시공업자들이 해양경찰청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창설 61년만에 해체되는 해경은 오는 19일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다. /연합뉴스

법정 가는 '자사고 사태'

교육부, 서울 6개교 지정취소 '직권 취소'… 시교육청 법정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9일부터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입시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잠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한전KDN, 의원 4명에 '입법로비'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한전KDN의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 568명에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1인당 995만~1816만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한전KDN으로선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사장은 대응팀을 만들어 여야 4명의 의원에게 로비를 벌이기로 했다.

대응팀은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개정 내용에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한 법률 수정안을 전달하며 법안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며 전 의원에게 1280만원,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

작년 2월 전 의원은 한전이 원하는 대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8월 중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말 시행됐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당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유주영기자 boa@

서울 황학동 노후건물 증축 기준 완화

풍물시장으로 유명한 서울 중구 황학동 267번지 일대(19만9300㎡)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 일대가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돼 15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연면적의 30%를 추가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도심부인 사대문 밖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은 구역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약 87%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신축 또는 개보수가 시급한 곳이었다.

구는 이달 20일까지 열람 공고를 하고 서울시의 구역지정 결정이 고시되면 올해 안으로 건축 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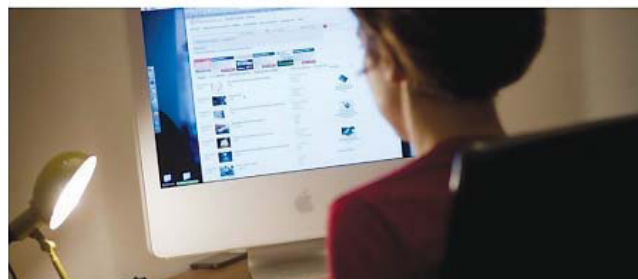
앞서 올 1월에는 충무로5가 묵정공원 일대, 광희동2가 성안마을, 필동2가 서애길 유성룡터, 장충동1가 남소영길, 신당동 떡볶이 골목 등 5곳(26만 3499㎡)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황학동 일대와 2011년 서울시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충무로 일대(9만 3236㎡)까지 포함하면 중구는 서울 전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주영기자

Coin, et monte un piège avec la police

CRÉÉ : 17-11-2014 11:00

FAIT DIVERS – A Nantes, le propriétaire d'un vélo, victime d'un cambriolage, a retrouvé son bien en vente sur internet. Un piège a été élaboré avec la police pour prendre les malfaiteurs en flagrant délit...

도둑맞은 자전거 중고 사이트에

metro France

프랑스에서 한 자전거 주인이 도둑맞은 자신의 자전거를 중고 사이트에서 발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프랑스 북서부 낭트 지방의 한 주민은 지난주 도둑맞은 자신의 자전거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했다. 도둑맞은 자전거는 500 유로(약 54만원)의 고급 자전거로 흔치 않은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전거 주인은 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프랑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봉 꾸앙에서 그는 자신의 자전거와 매우 흡사한 200 유로(약27만원)짜리 자전거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과 협력하여 판매인과 거래 약속을 잡은 자전거 주인은 지난 주말 낭트남역에서 판매인을 만났다. 그는 단번에 자신의 자전거를 알아봤으며 곧바로 경찰은 자전거 판매인을 붙잡았다.

하지만 자전거를 판매하러 온 사람은 14세 소년으로 그 역시 누군가로부터 단지 부탁을 받아 사이트에 올린 것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소년은 풀려났으며 범인을 붙잡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시비 로랑 기자·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재활용수거함 삼총사' 눈길

metro Russia

최근 국제재활용의날(11월 15일)을 기념해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쓰레기 재활용 캠페인'이 열렸다.

광장에 수거함 모양을 본 떠 만든 파란색·초록색·노란색 인형이 등장하자 시민의 시선이 집중됐다.

행사를 주관한 그린피스 직원 알렉산드르 지간코프는 "모스크바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다"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공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활동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세이 쉬리킨 기자·정리=조선미기자

125kg 거대 이탈리아 빵

metro Brazil

브라질에서 125kg짜리 거대 파네토네(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겨 먹는 이탈리아 빵)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 성 베르나르두 시에서 13일부터 열린제과제빵 박람회에서는 산타 썰매에도 채 들어가지 않는 크기를 가진 125kg 무게의 파네토네가 등장했다.

에우제니우 몽타나 제빵사는 이 거대 파네토네 뿐만 아니라 150kg의 푸딩, 92kg의 고기만두 등 보통 사이즈보다 훨씬 큰 크기의 음식들도 준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도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님을 밝혔다. 그는 "300kg의 볼로냐 햄 및 70kg의 빵을 가지고 거대 샌드위치를 만들어 박람회에 선보일 계획이다. 입장료와 시식은 언제든 무료"라며 "올해 말에는 500kg 햄버거 만들기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드레 비에이라 기자·정리=정자연 인턴기자

아베 중의원 해산 꼼수?

'아베노믹스' 실패 돌파구 마련… 장기 집권 포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기자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8→10%)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것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뒤 소비자 지출이 줄고,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상황이 나빠지자 서둘러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는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지방 경제 등 활성화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19일이나 21일에 해산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다음 달 2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같은 달 14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세 재인상은 2017년 4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정보다 1년6개월 늦은 것이다.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자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꼼수'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몇몇 변호사들은 현 상태로 총선을 강행하면 모든 선거구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가 2012년 중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벨벳 혁명' 25주년… 가면 시위대 1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벨벳 혁명' 25주년을 맞아 시민 수천명이 가면을 쓴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 '베이프'(Vape)

전자담배 뜻하는 신조어… 사용빈도 급증

'전자담배' 혹은 '전자담배를 피우다'란 뜻의 영어단어 '베이프'(Vape)가 옥스퍼드 사전의 '올해의 단어'로 뽑혔다.

옥스퍼드 사전은 "전자담배가 널리 퍼지면서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됐다"고 17일(현지시간) 선정 이유를 밝혔다.

베이프는 '증기'(Vapour) 혹은 '증발하다'(Vaporize)를 축약한 신조어다. 전자 담배와 같은 기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인다. 전자담배 기기 그 자체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지칭하는 명사로도 사용된다.

/가디언 제공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지난해 2배 늘었으며, 단어를 접할 확률도 2년 전보다 30배 더 커졌다. 특히 영국 최초 전자담배 카페가 생기고 미국 뉴욕시에서 실내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달아오른 지난 4월 이 단어의 사용이 급증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옥스퍼드는 매년 그해의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단어를 선정해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셀피'(selfie)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조선미기자

키스하면 세균 공유 10초에 8000만 마리

키스를 자주하는 커플은 세균도 공유하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의학뉴스 웹진 헬스데이는 네덜란드 TNO(응용과학연구원) 미생물학·시스템미생물학부가 최근 '미생물 저널'에 실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커플 21명에게 미생물이 함유된 생균음료를 마시고 10초간 키스를 하게하고 두 사람의 입안 내 세균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무려 세균 8000만 마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렘코 코트 박사는 "키스가 구강 미생물군에 어떠한 영향·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키스를 자주 하는 커플일수록 비슷한 세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국명 기자 kmlee@

“여우와 같은 현명함이 살아남는 비결”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임민욱 사람인 컨설턴트

배려·소통 장점 강조해야 열정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여성친화기업 적극 노크를

'문과 여자 대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 밖에 없다.'

최근 취업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이같은 한탄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여대의 취업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 평균 58.6%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힘든 취업문을 뚫고 입사에 성공하더라도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막혀 승진에서 탈락하기 십상이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임민욱 컨설턴트는 이럴 때일수록 여성만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함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당당함을 지녀야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지닌 면접관의 시각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섬세함으로 '금녀 공간' 입성

"자동차 업체 품질관리(QC) 부문에 지원한 한 여성 지원자는 면접에서 '10살이나 많은 남성 기술직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불편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달가워하지 않는 면접관에게 이 구직자는 '나이 많은 직원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죠. 여기에 '완벽한 품질을 위해서는 여성만의 섬세하고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당당히 '금녀의 공간'에 입성했습니다."

남성에 비해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면접관들의 편견을 깨는 것도 필요하다고 임 컨설턴트는 지적했다. 강도 높은 업무와 야근도 견딜 수 있다는 열정까지 보여준다면 금상첨화라는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세상'인 통신업체 영업 관리 직무에 최근 입사한 여성 지원자의 사례를 참조할 만합니다. 이 구직자는 해당 업체 60여 곳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모은 명함과 함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면접 때 제출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구호에 그친 남성 구직자들과는 달리 행동으로 열정을 보여줘 면접관에게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선배가 돋보이도록 행동해야

입사 후 맞닥뜨리게 되는 선배와 동료들의 무시도 여성들이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임 컨설턴트는 속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맞춤형으로 대응하라고 충고했다.

"최근 인기를 끄는 tvN '미생'의 여주인공 안영이처럼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남자선배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여사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보다는 선배가 돋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팀장 등에게 칭찬을 듣는 경우에도 '선배가 잘 가르쳐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tvN '미생'의 여주인공 안영이처럼 '여자라서 안 돼'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해'라는 여우같은 현명함이 필요하다. /tvN 제공

임 컨설턴트는 여성친화기업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성장할 기회가 일반 기업보다 많다는 설명이다.

"이웅렬 코오롱 그룹 회장은 '그룹의 반은 여성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2년 여성인력 할당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효성ITX의 경우도 여성인력 비율이 80%에 육박하죠. 이런 기업에서는 여성들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도 많습니다."

◆실력·전문성으로 인정받아야

임 컨설턴트는 여성 직장인도 실력이 무엇보다 확실한 생존무기라고 강조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꾸준히 내는 직원을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기업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는 영업사원 시절부터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의사들까지 '약에 대해 궁금하면 김은영한테 전화하라'고 말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과장일 때는 부장처럼, 부장일 때는 임원처럼 일하자'는 신념과 함께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여성 특유의 소통과 배려에도 힘썼죠. 김 대표처럼 '여자라서 안 돼'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해'라는 여우같은 현명함을 발휘한다면 두꺼운 '유리천장'도 충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여성행복 아너 릴레이 캠페인 출범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여성행복 아너 릴레이 캠페인 출범식'에서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고액기부자들이 여성행복을 키운다는 의미를 가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정자 유진기공 회장, 김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취준생 83% “전공 선택 후회”

취업에 도움되지 않아

취업준비생 절반 가량은 전공과 무관한 직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 선택에 만족하는 취업준비생은 10명중 2명에 불과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취업준비생 716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취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공을 살려 취업할 계획인지'를 물은 결과, '그렇다'는 대답은 52.5%에 그쳤다. '전공을 살리지 않겠다'는 대답이 절반에 가까운 47.5%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도 크게 떨어졌다. '전공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려 83.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공 선택을 가장 후회한 순간으로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진로가 많지 않을 때'가 34.2%로 가장 높았다. 적성에 맞지 않을 때(25.5%), 전공이 취업에 걸림돌이 될 때(22.8%)가 뒤를 이었다.

이에따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병행하는 취업준비생이 33.9%에 달했다. /이국명기자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자신에 맞는 영어시험 노려라

Q 토익·토스·오픽 등 어학 자격시험점수가 부족하다면 아예 이력서에 쓰지 않는 게 나을까요.

A 취업하기 위해 토익, 토스, 오픽 등 영어 관련 점수를 모두 다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셋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가지 중에 스스로에게 잘 맞고 자신 있는 시험 하나를 선택해 공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형을 잘 파악하면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최소 합격기준은 토익의 경우 문과는 평균 850점 대, 이과는 750~800점 사이 입니다. 토스는 레벨 6, 오픽은 IM2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혹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영어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어학성적이 필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필수로 요구하는 기업인데 성적을 적지 않을 경우 서류 심사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습니다. 토익 점수를 구간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토익 800점 후반과 920이 받는 배점이 같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격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어학성적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입사 후에도 승진을 위해서는 어학 성적을 필수로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과 진급을 목표로 한다면 평균 이상의 점수가 필수적입니다.

/취업단기(www.engdangi.com/job)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market index <18일>

코스피 1967.01 (+23.38)

코스닥 536.20 (+5.02)

금리(국고채 3년) 2.18 (−0.01)

환율(원·달러) 1099.30 (+3.90)

갤럭시탭4 8.0 사면 메가스터디팩 무료 KT는 연말까지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탭4 8.0'을 구매하고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메가스터디의 교육 콘텐츠를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LTE 메가스터디팩'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KT 제공

공정위 "과징금 갈수록 커져"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과 받은 담합 과징금이 2010년 이후 1조6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세계 각국이 한국 기업의 담합(카르텔)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6605억원(조치시점의 환율 적용)에 이른다.

미국은 2011년 3월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에 370억원(3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D램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2060억원(1억4600만유로), 730억원(5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박성훈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전자 2015년 체질 개선 선언

스마트폰 모델 30% 정리 핵심제품 집중

한국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8일 뉴욕 웨스틴 그랜드 센트럴에서 열린 IR행사에서 스마트폰 시장 공략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전략 변화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내년 스마트폰 전략은 뚜렷했다. 모델수를 30% 정도 줄이고 중저가 라인업을 강화해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품종 대량생산 라인업을 일부 정리하고 핵심 제품에 집중해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국 샤오미 등 중저가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현지 업체들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명진 삼성전자 IR담당 전무는 "올해 가격이 중요해진 스마트폰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며 "자원, 모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겠다.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모델 수를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제조공정, 마케팅, 유통비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전무는 "(내년 스마트폰 모델 축소는) 대량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체 기술 개발과 동시에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맺으며 반격에 나선다. 이창훈 삼성디스플레이 기획팀 상무는 "3~4년 안에 내·외부 거래의 비중을 5:5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충분히 목표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 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5년 공개를 목표로 스마트폰용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하고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었을 때의 곡률이 5㎜ 수준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에서 1㎜ 곡률을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상무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년 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며 "마지막 완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삼성전자가 내년 갤럭시노트5와 함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 들어서는 신동빈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아이폰6 대란' 책임 물어 검토… 과징금 제재도 예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고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만간 고발 대상에 속하는 이통 3사의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도 명시돼 있다.

그동안 영업정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든 경우는 있었으나 불법 보조금 지급만을 이유로 이통사 임원을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

방통위 측도 이통사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듣는 것은 '단순 진술 청취'라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 조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기존의 소명 절차와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그동안 시장조사를 통해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진다면 이통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재영기자

'단통법 요금할인' 1년 약정도 적용

이통사, 대상자에 통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단통법에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 이용자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이 같은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 취지에 맞춰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년 약정 시로 혜택을 확대했다.

약정 만료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통 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통 3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현재 자급단말기로 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한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영기자 ljy0403@

넓직한 에어버스 A350XWB 내부 18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격납고 앞에서 에어버스 A350XWB 항공기가 공개됐다. 에어버스는 "A350XWB는 광폭 동체 최신형 항공기로 동급 항공기에 비해 넓고 효율적인 기내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생보협 차기 회장 선출 '동상이몽'

대형사, 이수창 후보 선호에 중소사, '삼성' 입김 우려 기피

생명보험협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회장 인선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차기 후보에 대한 업계 내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회추위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 구성원 확인과 위원장 선출, 후보 선출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했다.

회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위원별 복수 후보를 추천키로 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가 배제된 상황에서 현재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은 이수창(사진 왼쪽) 전 삼성생명 사장과 고영선(오른쪽) 교보생명 부회장, 신은철 한화생명 전 부회장 등이다. 하지만 업계별로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업체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수창 전 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1973년 삼성그룹 공채 14기로 삼성생명에 입사한 이후 삼성에버랜드, 제일제당, 삼성중공업 등을 거친 대표적인 '삼성'맨이다.

이 전 사장은 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는 등 보험업의 경험과 노하우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형사에서는 이 전 사장에 대해 한 기업에서 40여년간 활동해 온 점과 정통 '삼성'맨으로서 협회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다.

지난 1971년 한국신탁은행에서 금융권에 발을 들인 고 부회장은 이후 1982년 신한은행 개설준비위원을 거쳐 지난 1997년까지 신한은행에 몸담았다. 이후 신한생명,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사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교보자동차보험 대표이사, 교보생명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여러 보험사와 협회직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사에서는 다양한 경험은 인정하지만 단기간에 회사 이직 횟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은철 부회장의 경우 강력한 출마의사를 보인 '삼성' 후배 이 전 사장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중소업체에서는 이 전 사장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다.

손해보험협회보다 상대적으로 대형사 특히 삼성생명의 발언권이 높은 생보협회에서 '삼성' 출신의 회장선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도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형사 위주의 협회 운영에 대해 불만이 다소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업체에서는 이 전 사장이 차기 협회장이 되면 지금보다 중소사 입장을 개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추위는 오는 25일 2차 회의를 열고 위원별 추천후보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 금투협 회장 출마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이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8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금투협 회장 선거는 최소 5파전 이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금융인으로서 '금융과 더불어 세상을 꿈꾸게 한다'는 비전을 전 금융투자업권의 지혜와 역량을 통합해 실현해 보고자 금투협 회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업계의 역량을 모으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까지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했기에 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회원사가 협회에 바라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이사, 대우증권 사장 등을 지냈다.

앞서 박종수 현 회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에 이어 이번에 김 전 사장의 출마 선언이 더해지면서 금투협회장 선거는 최소 5파전 이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금투협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표시했거나 검토 중으로 알려진 인물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유정준 전 한양증권 사장 등이다.

금투협의 회원사는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을 합쳐 307곳이며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은 167개사다.

금투협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이사회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선출 절차를 결정한 뒤 다음 달 하순쯤 공고를 낼 예정이다.

투표는 내년 1월 말쯤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기자 hjkim1@

'현대able 보세라차이나랩' 출시 현대증권은 오는 24일 중국 자산운용사인 보세라자산운용의 조언을 받아 운용되는 '현대able 보세라차이나랩'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후강퉁 제도 시행으로 중국 본토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중국 본토 주식 중 옥석을 구별하기 어려워 자문이 필요하다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 /현대증권제공

생보재단, 의료보조용품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5000만원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의료보조용품 지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식에는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담도폐쇄증·척수수막류 환우 등이 참석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배뇨와 배변장애가 많아 지속적인 기저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또 증상의 정도가 심해 자력으로 배변활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관장용 카테터가 필요하지만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생보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총 193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했고,

유석쟁(왼쪽)생보재단 전무가 18일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에게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올해에도 45명에게 5000만원 규모의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했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질환관리를 위해 매일 소모하는 의료보조용품 지원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日 '엔저 공포' 확산 수출기업 비상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 금융시장에 또다시 엔저 공포가 불어 닥치면서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7일 올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연율 기준 마이너스 1.6%로 발표했다. 이는 성장률이 반등해 2.2%를 기록할 것이란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수준이다. 3분기 경제는 전분기 대비로도 0.4% 후퇴했다.

주요 외신들은 "올 봄 소비세 증세 이후 개인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내각부는 이와 함께 앞서 발표된 2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마이너스 7.1%에서 7.3% 후퇴한 것으로 하향 수정했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에는 지난 4월 소비세율 1차 인상(5%→8)에 따른 소비 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3분기에도 회복력이 더뎠다. 3분기 개인 소비는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3분기에도 경기후퇴 국면을 이어가면서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2차 인상(8→10%)을 추진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더욱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째 감소한 것은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 세율 10%로 인상을 연기하고,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상황은 엔저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들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더욱 거센 엔저 파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리고 있어 외환건전성,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엔저는 미국이 용인했다는 점에서 종전 엔저와 다르다"고 언급한 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일본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접근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상황도 안 좋아지다 보니 수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이슬람 채권>

남미까지 보폭 넓히는 '수쿠크'

issue&view

매년 10% 이상 성장

한국은 종교계 반발에 답보 상태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이슬람금융시장의 대표 상품인 이슬람채권 '수쿠크'가 미국과 남미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멕시코 시장까지 보폭을 넓혔다. 비이슬람 서방국 중에서 영국을 시작으로 룩셈부르크,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도 수쿠크 발행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 관련 안이 수년째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현지 시장 진출도 더뎌 전 세계적인 '오일머니' 붐에서 한 발짝 빗겨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는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통한 수쿠크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남미 시장의 첫 수쿠크 사례가 될 전망이다. 페멕스의 구체적인 발행 날짜와 규모는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비이슬람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속속 수쿠크 발행에 착수했다.

영국이 올해 6월 서방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2억파운드 규모의 수쿠크를 발행하고 자국 수도인 런던을 이슬람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콩과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비이슬람권으로서 수쿠크 발행국 행렬에 가담했다.

일본의 대형 은행인 도쿄미쓰비시 UFJ는 말레이시아 자회사를 통한 올해 내 발행이 임박했고 프랑스의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도 발행을 추진 중이다. 골드만삭스도 지난 9월 5억 달러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수쿠크 발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풍부한 무슬림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에 관련 시장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확장됐고 호주, 필리핀, 방글라데시도 최근 발행 의지를 밝혔다.

이슬람개발은행(IDB)과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수쿠크 발행액수는 지난 2008년 149억 달러(약 16조)에서 2009년 233억 달러(약 25조)로 증가했고 매년 10~15%씩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서는 372억 달러(약 40조)로 1년새 16% 늘어났다.

반면 한국은 이슬람금융의 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수쿠크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2011년 논의가 무산된 뒤 답보 상태에 있다.

수쿠크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자 대신 부동산 임대료나 배당 등 배당금의 형식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이때 배당금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므로 다른 외화채권과 경쟁하려면 채권의 투자 수익에 조세 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생긴다.

발행에 반대하는 종교계 측은 수쿠크에만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수쿠크 발행을 추진했다가 2011년 샤리아 논란으로 지연을 겪은 골드만삭스가 최근 공식 발행을 발표한 것을 두고 향후 분위기 반전을 예상하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증권업계는 저성장 기조에 업황 부진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쿠크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동남아 이슬람금융시장 등지에 국내 증권사가 바로 진출하기엔 제도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수쿠크 역시 분명 큰 새로운 시장이며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외이웃 위한 봉사활동 메리츠화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김장김치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이정일 메리츠화재 노동조합위원장, 남재호 사장, 윤덕제 인사총무본부장이 김장을 담고 있다. /메리츠화재 제공

금감원장에 진웅섭 정금공 사장 내정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진웅섭 현 정책금융공사 사장(사진)을 임명제청했다.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진 내정자가 금융정책과 감독 분야에 대한 높은 업무 전문성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도약과 신뢰 제고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진 사장은 1959년 서울 출생으로 건국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뉴욕주립대를 졸업했다.

그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재무부 관세국,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장, 대통령비서실(일반직고위공무원), 금융위 대변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백아란기자

'해외직구 쇼핑몰'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

KB카드 '이지쇼핑·맞춤형 카드'로 초보자도 안심하고 구매하게

KB국민카드가 해외직구족을 위해 배송과 구매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열고 해외직구족 잡기에 본격 나섰다.

'해외직구 쇼핑몰'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해외 쇼핑몰로 연결되는 몰인몰(Mall-in-Mall) 형태다. 이곳에서는 해외직접구매가 어려운 초보고객을 위해 '이지(Easy) 해외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고객이 외국어 쇼핑 주문, 배송비 사후 결제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쇼핑몰들의 할인과 행사 정보도 실시간 제공한다.

현재 이베이(Ebay), 갭(GAP) 등 180여 개의 유명 해외 쇼핑몰 이용이 가능하며 KB국민 누리카드나 정체크카드를 이용시 최대 7%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출시된 'KB국민 마일리지 가온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실적조건과

적립한도에 제한없이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앞서 KB국민카드는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마스타카드와 손잡고 가상의 카드번호로 결제가 이뤄지는 '해외 온라인 안전결제(SecurePay)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해당 가맹점에 실제 카드번호가 아닌 가상의 카드번호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말까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행사 응모 후 '해외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금액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만5000원을 캐시백 해 준다.

한편 오는 연말까지는 쇼핑몰 오픈을 기념해 추가 캐시백과 배송비 할인 등의 이벤트도 열린다.

12월 14일까지 청구 할인 쇼핑 카테고리 내 행사 대상 쇼핑몰에서 미화 기준 100 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4%까지 할인 된다.

주문한 물품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쇼핑 안심보험'도 무료로 제공된다. 오는 12월 말까지 미화 기준 300 달러 이상 구매 시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파손과 고장 수리 비용을 최대 50만원(자기부담 50%)까지 보상한다.

같은 기간 마스타 체크카드(KB국민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미화 100 달러 이상 이용 후 배송대행업체 '몰테일'을 통해 배송대행 신청을 하면 배송료 10달러가 할인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조세 회피' 대부업체 계열사 조사

제2, 제3의 계열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해온 대부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직권검사대상 19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에서 계열사까지 포함해 우회 지분 가능성, 계열사 신용정보 제한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직권대상 대부업자의 계열대부업체 현황조사에 따르면 190개사 중 50개사는 지분구조가 얽혀있거나 임원 등이 겸직한 상호계열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처음 시행한 이번 조사에서 이들 50개사는 22개권으로 묶여 있었다.

현재 국내에는 8000여개의 대부업체가 난립 중이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고 190곳만이 금감원의 관리감독하에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직권검사대상 계열대부업체의 자산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대부업체 직권 검사 시 연계검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대부잔액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은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부업체들이 계열사를 만들어 변칙적으로 자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 금융사 계열 대부업자를 추가로 파악해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우리은행, 코스피 상장

한국거래소는 19일 우리은행 주권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을 완료했다.

신규상장일 현재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56.97%의지분을 보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의 자산총계는 243조원으로 당기순이익 3943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주권의 시초가는 19일 오전8~9시발행가격(1만7076원)의 90~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 결정된다. /김현정 기자

<지상파-유료방송>

방통위, '재송신료 협상' 개입하기로

지상파 "방송법 개악 반대" 강력 반발… 유료방송 "지상파 주장 황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방송업계는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을 놓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에도 지상파 3사는 12월 말 지상파 재송신 협상이 만료되는 티브로드·CMB와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유료방송업계 측은 현행 280원인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더이상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는 40% 이상 증가한 4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또다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또다시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로 갈등 상황이 재차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방통위가 나선 것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으로 방통위는 양측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블랙아웃 발생 시에는 방송재개를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제도의 경우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가 축소됐다. 앞서 올해 개최된 '2014 브라질 월드컵'이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 경우 방통위가 나서서 직권으로 재송신료 협상을 조정하면,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와 지역 민영방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3사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율적인 방송사업자 간 거래를 무시하는 방통위의 악성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방통위 내부 상임위원들조차 이견을 보였던 사안임에도 불합리한 의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재정제도에 집착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시장의 거래질서를 황폐화하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지역민방 9개사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는 "지역민방에 재송신료는 중앙집중적 방송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재원 부족 상황에서 고품질의 지상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라며 "방통위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지상파는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료방송업계는 "지역 민방의 제작물량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송신료 분쟁 개입을 이유로 지상파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지상파는 스스로도 반성하는 자기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엔씨소프트 미래, 모바일에"

김택진 대표 신작 소개

"엔씨소프트가 만드는 모든 게임을 모바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김택진(사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년만에 공식석상에 나와 모바일 시대 엔씨소프트의 미래 전략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8일 서울 청담동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의 초대'라는 주제 속에 2014 지스타 사전 행사를 열었다. 국내 최대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선보일 차기 신작과 모바일 전략 발표가 주 내용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진 대표가 메인 진행자로 직접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김 대표는 "엔씨소프트는 PC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함께 가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엔씨소프트의 모든 신작은 모바일과 온라인이 긴밀하게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모바일 중심 사업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엔씨소프트 신작도 직접 소개했다. 신작 발표는 각각 개발을총괄하고 있는 배재현 최고개발책임자, 우원식 최고기술책임자, 서관희 엔트리브소프트 대표가 함께 했다.

엔씨소프트 PC 온라인 게임 차기작으로는 '리니지 이터널'과 '프로젝트 혼'이 공개됐다. 김 대표는 행사 말미에 리니지 이터널의 모바일 버전을 현장에서 4DX로 시연하기도 했다.

모바일 신작은 총 6종이 소개됐다. 블레이드&소울과 아이온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블소 모바일'과 '아이온 레기온스', 캐주얼 모바일 게임 '패션스트리트', 엔트리브소프트의 '프로젝트 H2' '팡야 모바일' '소환사가 되고싶어' 등이다.

엔씨소프트 신작들은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유선전화 편의기능 스마트폰에서도 KT는 유선전화 이용이 많은 고객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올레 통화매니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18일 출시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유선전화의 편의기능을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KT 제공

자동차 부품 더 가볍고 더 강하게!

첨단소재 개발 박차

국내 화학업계가 더 가볍고 튼튼한 자동차용 부품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첨단소재는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 방탄복 소재로 사용되는 슈퍼섬유 '아라미드'를 활용한 범퍼 빔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무게가 기존 강철 제품의 절반에 불과해 차량 경량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충돌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보다 앞서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GMT)을 활용해 개발한 하이브리드타입 프런트 범퍼 빔은 현대자동차가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생산·판매 중인 양산차 모델에 실제 적용됐다. 기존 범퍼보다 무게를 12% 줄였고, 고속 충돌시 빔이 끊어지는 문제를 개선했다.

GS칼텍스도 최근 차량 부품용 탄소섬유복합소재인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수지(LFT)를 선보였다. 강철보다 무게가 50% 가볍고, 강성은 강화된 것으로 기아자동차가 8월 말 출시한 '올 뉴 쏘렌토'의 파노라마 선루프 프레임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완성차 업계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이라고 전했다. /김민준기자 mjkim@

'CEO피자'로 직원과 소통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스킨십 경영' 화제

5만5000명의 직원에게 피자를 주문하는 CEO가 있다. 바로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다.

구본준 부회장은 2011년 당시 실적 악화로 움츠렸던 스마트폰 개발 팀을 격려하기 위해 피자를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최고경영자(CEO) 피자'로 임직원들과의 스킨십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LG 임직원 5만5000여명이 'CEO피자'를 받았다.

구 부회장은 지난달 출시한 'G3 스크린'에 탑재된 첫 독자 AP '뉴클런' 개발을 위해 노력한 연구원들을 격려하고자 피자를 보냈다. 구 부회장은 피자 케이스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LG전자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 6월에는 '웹OS 스마트+TV'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디자인경영센터 산하 디자이너 150명이 'CEO피자'를 받았다. '웹OS 스마트+TV' 인터페이스는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IDEA' 동상 수상에 이어 '레드닷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CEO피자'를 받은 직원들은 "현장 곳곳을 배려하는 CEO의 현장경영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 필리핀,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전 세계 곳곳의 해외법인과 지사 약 80곳도 'CEO피자'를 받았다.

LG전자는 구 부회장의 'CEO 피자' 릴레이 이벤트가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

삼성·LG전자 "친환경 분야는 내가 최고"

인증 제품 출시 경쟁…안전 중시하는 소비자 선호 반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품 기술 경쟁을 넘어 친환경 분야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조 과정부터 폐기 과정까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제품 사용 시 에너지 효율 등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자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제품 경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도입한 에코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친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 모델별로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친환경 제품 등급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주요 제품들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4'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러시아 등 총 4개국에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으며 '갤럭시 노트 엣지'는 일본에서 인증을 받았다. TV 제품인 'UN55H7100' 역시 국내 저탄소 인증, 미국 UL의 ECV 환경 마크를 획득했으며 러시아에서는 유럽 소비자가 뽑은 제 1위 친환경 제품에 올랐다. 이 제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며 기기 자체에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케이스, 사용설명서 등 제품 전반에 친환경·재활용 소재를 적용했다. 최근에는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선정하는 'CES 혁신상' 중 친환경 부문에서 D램 모듈, 프린터 등 4개 제품이 상을 받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달 환경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에 참가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이런 제품과 기술력이 어떻게 친환경 생활 실천에 기여하는지 소개했다. 또 '20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는 국내 최고 냉난방 효율을 달성한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슈퍼4', 기존 심야 전기보일러 대비 소비전력량을 최대 70%까지 줄인 고효율 '심야 축열식 시스템 보일러'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솔루션도 선보였다.

이와 함께 LG전자도 친환경 인증을 얻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동용 웨어러블 기기 '키즈온'은 'TUV 라인란트'의 '그린마크' 인증,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 등을 획득해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민감한 엄마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곡면 올레드 TV'는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인터텍 그린 리프 마크'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이 제품은 환경 유해 부품과 소재 수를 줄이고 자발적 규제 물질인 PVC를 대체한 내부 케이블과 OLED 패널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한국에서 스마트폰 최초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갤럭시 노트4'(왼쪽). LG전자는 지난달 21~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에 참여해 친환경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LG전자 제공

개인용 3D 프린터를 집에서 개인용 3D프린터 업체인 XYZ프린팅(Printing) 홍보 도우미들이 18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국내 출시 행사에서 3D 프린터 다빈치 1.0A와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이 제품은 60만원대로 소비자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축구장 4배 면적 컨테이너선 뜬다

현대重, 세계 최대 1만9000TEU급 건조

현대중공업이 현존 세계 최대인 1만9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 본사에서 'CSCL 글로브(Globe)'호 명명식을 가졌다.

글로브호는 길이 400m, 폭 58.6m, 높이 30.5m로 축구장 면적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이 차이나쉬핑컨테이너라인(CSCL) 사로부터 수주한 동급의 컨테이너선 5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이다. 운항 속도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연료를 조절하는 전자제어식 엔진(ME엔진)을 탑재했다.

현대중공업은 2005년 세계 최초로 1만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80여척의 1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을 인도하며,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해운업계가 연료비와 운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만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한 컨테이너선 생산기술과 설계능력을 바탕으로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위례신도시 입성, 막차 타볼까

아파트·오피스텔 등 2709가구 분양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위례신도시가 막판 열기를 내뿜을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올 초 '위례 엠코타운 센트로엘'을 시작으로 '위례 신안인스빌', '위례 호반베르디움', '위례자이', '위례중앙 푸르지오' 등 공급된 단지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9월 분양된 '위례자이'는 평균 138.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 1997년 판교신도시가 세웠던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을 갈아 치웠다.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프리미엄도 4000만~5000만원까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를 비롯해 투자자까지 앞으로 나올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남은 11월과 12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대기 중인 단지는 아파트·오피스텔 포함해 총 5개 단지, 2709가구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A2-2블록에 짓는 '자연&자이e편한세상' 공공분양 아파트다. 19일 1·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부지 바로 앞으로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있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았고, 전체 1413가구, 전용면적(이하 동일) 51~84㎡로 설계됐다.

대우건설은 이달 말 휴먼링 내 조성되는 C2·3블록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와 휴먼링과 맞닿은 C4·5·6블록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각각 214가구(97~134㎡)와 630가구(84㎡)로 이뤄졌다. 두 단지 모두 위례신도시 내부를 이어주는 신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과 중심상업시설인 트랜짓몰과 접해 있다.

특히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는 남측으로 수변공원이, 서측으로 단독주택 부지가 있어 개방감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는 2017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과 도보 5분 거리다.

12월에는 보미종합건설이 C 2-1블록에서 85㎡ 초과 131가구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놨다. 휴먼링은 물론, 트랜짓몰 안에 들어서 상업지구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달 한화건설은 업무24블록에 20~82㎡, 321실로 이뤄진 '위례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위례~신사선 중앙역과 접해있는 역세권 단지다. 트랜짓몰과 인접해 쇼핑·문화·여가시설을 손쉽게 누릴 전망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웨딩 드레스 정조준 "탕탕탕!"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美 '총각 파티' 대신 '이혼 파티' 이벤트… 사격장·스카이 다이빙 코스 인기

미국에서 '이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를 훌훌 털어 버리고 미래를 산뜻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미국에서 '이혼 사격' 등 이혼 기념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 전 이혼한 웬디 루이스(52)는 이혼 파티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로 떠났다. 손에 든 가방에는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 드레스가 들어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루이스는 곧바로 이벤트 업체가 마련한 사격장을 찾았다.

업체 관계자는 "루이스가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 드레스를 과녁삼아 방아쇠를 당기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사격을 하면서 마음 속에 응어리진 분노를 푸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결혼 직전 마지막으로 솔로의 삶을 불태우겠다며 '총각 파티' '처녀 파티'를 하는 젊은 남녀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 파티를 준비해 달라는 사람이 더 많다"며 "이런 추세로 회사 이름도 '이혼 파티 플래너'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시원하게 상공을 가르며 이혼을 자축하는 스카이 다이빙도 인기다. '겨우 살았네' '자급자족' '모든걸 얻었다' 등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 있는 스카이 다이빙 패키지의 가격은 1000~1800달러(약 110만~197만원)다.

웨딩 케이크 빰치는 이혼 케이크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한 케이크 전문점은 신랑신부가 다투는 모습을 케이크 장식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혼 케이크의 이름은 '신랑은 쓰레기'다. 신랑의 한 쪽 다리를 신부가 들어 올린 뒤 쓰레기장으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다. 신랑이 악어에게 잡혀 먹히는 모습을 표현한 '악어 케이크'도 인기 제품이다. 10인분짜리 이혼 케이크의 가격은 70달러 정도다.

이혼식이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 심리학자인 로빈 도이치는 "사람들이 이혼식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려는 것 같다"며 "지나간 결혼생활을 후회하고 슬퍼하기 보다 잘 정리하고 새 출발하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에볼라로 초콜릿 가격 폭등?
2020년 100만t 부족 '사치품'

앞으로 초콜릿 먹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초콜릿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 지역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어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의 전세계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가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창궐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18일 보도했다. 에볼라 때문에 두 나라의 코코아 생산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 지역에 닥친 가뭄과 식물 병충해도 코코아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국제코코아협회(ICO)는 글로벌 코코아 생산량이 30~4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적인 초콜릿 제조업체인 마르스와 베리 콜르보도 초콜릿 부족 사태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코코아 수요가 공급량보다 7만t 더 많았다. 2020년이 되면 코코아 생산량 부족분이 현재보다 14배 이상 늘어난 100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인들이 초콜릿 맛을 알기 시작했다는 점도 가격 폭등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서구 선진국의 5%에 불과해 향후 폭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초콜릿 가격은 2012년에 비해 무려 60%나 급등했다"며 "서민층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이 머지않아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도요타, 수소연료전지차 내달 시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FCV) '미라이'를 다음달 15일 일본에서 시판한다고 18일 밝혔다. 연료전지차의 일반 판매는 세계 최초다. 가격은 723만6000엔(약 6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진은 이날 도쿄에서 다나까 요시가쯔 부사장이 미라이를 공개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中 올해 미집행 예산 4조 위안

전인대 예산 승인 늦은 탓… 연말에 풀릴 듯

중국 정부의 올해 미집행 예산이 4조 위안 (약 7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경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는 11조4000억 위안으로,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15조3037억 위안의 74%에 머물렀다. 신문은 연말에 돈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예산이 남은 이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예산 승인이 3월에 이뤄져 중앙 재정이 지방 정부로 전달되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사풍'(四風:관료·형식·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을 강조, 예산을 함부로 쓰는 분위기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미집행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연말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리 당겨 쓴 재정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덩수렌 상하이재경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예산 관리 규정에 따라 올해 남은 예산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정부 기관은 11월과 12월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쓴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서울시합창단

합창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신동원

바리톤 김동규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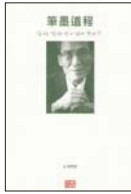
공연문의 02-6292-9370

새로 나온 책

칼다 기차의 추억

프란츠 카프카/하늘연못

마흔한 살의 나이로 죽는 날까지 독신이었고, 병마와 싸우며 원고를 썼던 작가 카프카. 이 책은 카프카의 독특한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1부는 '황새 같은 새' '변신' 등 동물들에의 비유로 풀어낸 우의적인 작품, 2부는 '칼다 기차의 추억'을 비롯한 여행자의 불안과 소외를 다룬 작품 등 성향에 따라 여섯 단락으로 나뉜다.

필묵도정

김정환/다운샘

송천 정하건의 삶과 작업기를 엮었다. 송천 정하건 선생의 유년시절부터 시작해 서예의 길을 걸어온 세월을 되짚는다. 걸어간 길을 발자국따라 고스란히 되밟아 나가는 과정이 아닌, 그가 가지 않았던 길, 가고자 했던 길, 가다가 만 길 까지 함께 담고 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

이은경/북오션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와 썩은 달걀을 주는 급간식 비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교육현장, 원장의 비리와 관련 공무원의 부패. 17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전직 원장이 어린이집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연애하듯 취업하라

이호석·박성일/커리어북스

취업의 전문가가 아니라 '채용의 전문가'가 쓴 책이다. 기업에서 서류 전형을 할 때 무엇을 보는지, 필기 전형은 왜 진행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면접에서 합격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올바른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는 "단순히 취업에 골인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조언한다.

/박지원기자 pjw@

미리보는 '2015'

일상에서 포착한 라이프 트렌드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려운 숫자 대신 우리 일상에서 포착한 변화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 주는 생활·문화 전용 트렌드서다. 출간 첫해인 2013년에는 '좀 놀아 본 오빠들의 귀환'으로 X세대의 활약을 부각했고, 2014년에는 불황에도 수그러들 줄 모르는 프리미엄 소비를 '그녀의 작은 사치'라는 주제로 조명했다. 이번 주제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소셜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세상이다. 1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페이스북에서 소통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지만 피로감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좋아요'와 친구 수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가면을 쓰게 됐다.

한편에서는 아예 가면을 벗고 본질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2015년을 달굴 또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

라이프 트렌드 2015:가면을 쓴 사람들

김용섭/부키

그동안 속도와 성장에 집착한 덕분에 우리는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 아니다. OECD 최고의 자살 사망률과 꼴찌를 기록한 행복지수가 보여 주듯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킨포크 스타일과 제주 이주,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 등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는 거대 기업들의 경쟁이 2015년에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쇼루밍족이 유통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스마트폰 덕분에 모바일이 유통 채널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자체가 사라졌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바빠지면서 시간을 파는 비즈니스도 확장될 전망이다. 모스크바와 런던에는 시간에 따라 요금을 파는 지퍼블랏이라는 시간제 카페가 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시간제 카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단서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재배열한 '라이프 트렌드 2015'를 통해 2015년을 한발 앞서 만나보자.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낼 통찰력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여행의 여유를 삶에서도

여기는 내가 사는 서울이 아니다. 삶과 시간이 여유만만하게 흘러가는 나폴리다. 렌터카 직원 말대로 맘을 편안하게 먹어야 한다. 일이 벌어졌다고 달달 볶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행이나 삶이나 다 그런 것이다. -'괴테와 함께 한 이탈리아 여행'(손관승/새녘) 중-

/황재용기자

영풍문고 종로점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2015년 연하장 등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17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영풍문고 제공

"크리스마스 카드 미리 준비하세요"

영풍문고 종로점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2015년 연하장 등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지난 17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연시에 손 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성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소품 등의 상품을 구성했다.

영풍문고 종로점은 평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김수정기자

'삼성북스데이'… 최대 78%까지 할인

삼성출판사가 최대 78% 할인하는 '삼성북스데이' 슈퍼 세일 행사에 돌입한다.

오는 20일까지 온라인몰 삼성북스를 통해 유·아동 인기 단행본부터 스테디셀러 전집까지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예비 초등생의 교과 학습을 도와주는 전집 '스토리텔링 수학과학동화'가 78% 할인되며 삼성북스 공동구매 앙코르 요청 1위를 다투는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와 '보들북 12권 풀 패키지'가 각각 62%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이 외에 '따라하면 저절로 100' '내가 만들자' '붙여도 붙여도 스티커왕 200' 등 단행본 베스트셀러가 최저가로 마련돼 있다.

/김수정기자

인터넷,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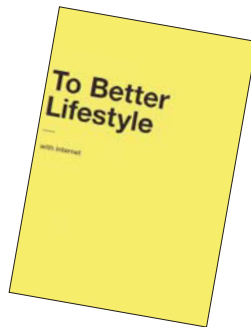
화제의 책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To Better Lifestyle-with internet

라이크컴퍼니 편집부/라이크컴퍼니

이 책에는 국가대표 통신기업 kt와 함께 ICT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 자원과 역량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또 인터넷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현대인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흥미롭게 재구성해 현대인과 감성적인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한민국 인터넷의 흐름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국내 인터넷 상용화 2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만나 그들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소개한다. 앞으로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도 함께 펼쳐진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직업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멘토가 될 것이며 인터넷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인터넷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조력자가 된다.

기가인터넷 시대를 맞이한 지금, 작지만 큰 의미를 담은 이 책은 더 나은 삶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래로 이끄는 가이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이케아, '가격 논란'에 '일본해 표기'까지

"해당 상품은 한국 판매 안 하겠다"… 제품도 해외 보다 비싸

다음 달 경기도 광명에 대규모 매장을 오픈하는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 코리아'가 일본해 표기는 물론 외국보다 비싼 가격제시 등으로 인해 연일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이에 앞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전례가 있어 기업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와 누리꾼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최근 개설한 공식 한국어 홈페이지에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했다. 해당 자료는 이케아가 전 세계 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영문판 자료로 동해를 'East Sea'나 'Sea of Korea'(한국해) 등으로 병기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미국·영국 등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벽걸이 장식용 세계 지도에도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 가격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케아는 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8000여 개 상품의 국내 판매가를 공개했다. 소품 등을 제외하고 가구 제품 가격이 대체로 20만~50만원 대였지만, 100만원 대 침대프레임과 옷장, 200만원 대 가죽 소파 등 일부 고가 상품도 판매 상품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 가격이 해외 가격 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1.6배 비싸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일본과 비교해도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판매 가격이 44만9000원인 TV장식장은 미국에서는 27만4000원(249 달러)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빌리 책장도 한국 가격(9만9900원)이 일본(8999 엔·약 8만5200원) 보다 비쌌다.

이에 대해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해외 판매 벽걸이 상품에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된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됐던 상품이다"며 "동해 표기법과 관련해 ISO(IKEA Of Sweden)에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진출 국가마다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일부의 경우 비싼 것일 뿐 전체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저렴한 상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 등을 중심으로 이 업체의 원론적인 답변에 분노하면서 SNS 등에서 성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케아 코리아는 19일 있을 헤이흄 KTX역 오픈 행사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어서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강강술래 "갈비 먹고 엄마 김장 돕자"

국내산 갯벌 천일염 무료증정 이벤트
와인1+1, 영양간식2+1 선물 증정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김장시즌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알뜰김장 대축제' 행사를 연다.

강강술래 매장(청담·홍대점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국내산 갯벌천일염 3kg을 무료 증정하며, 행사기간 동안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도 천일염(3kg)을 준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영양간식 칠칠한우떡갈비(1.08kg·3만8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1.08kg·1만9600원), 통등심 돈가스(2.16kg·2만3800원), 모짜렐라 돈가스(2.16kg·2만8000원)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더 주는 '2+1 덤 증정' 행사를 벌인다.

떡갈비는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들었으며, 너비아니는 국내산 돼지고기 70%와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흑임자를 함유했다. 돈가스는 국내산 돼지 통등심을 100% 사용했고, 모짜렐라 돈가스의 경우 아이들에게 좋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자연산 치즈를 넣었다.

또 전 매장에서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을 1병 주문하면 결제 시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1병을 선물로 준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명지대 산학협력단(BI기업 명지생활건강)의 '명지 아로니아킹스베리(1세트·23만원)'를 증정한다. 이 제품은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7배, 포도의 80배 이상 함유돼 피로회복·노화방지에 좋다.

/정영일기자 prms@

스페셜티, 세종로점 개장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가 18일부터 전문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차별화한 프리미엄 매장인 '엔제리너스커피 스페셜티' 세종로점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매장은 고품질 원두를 사용해 전문가가 핸드드립 방식으로 내린 고급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총 143석 3층 규모로 구성됐다.

특히 세종로점 관리자 전원은 커피감별사인 '큐그레이더(Q-grader)'로 배치돼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커피를 제공하게 된다, 정식 오픈은 24일 한다.

롯데리아, 19일 리아데이

롯데리아가 18일에 이어 19일 오후 2~10시 'Ria Day(리아데이)' 할인 행사를 벌인다.

이달에는 롯데리아의 간판 메뉴인 데리버거를 할인 판매한다.

롯데리아는 리아데이 가운데 19일에는 정상가 2300원인 데리버거를 해당 시간에만 약 절반 가격인 1200원에 판매한다.

피자헛 '피자 페스티벌'

한국 피자헛(대표 이승일)이 무제한 프리미엄 피자에 샐러드와 음료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피자 페스티벌'을 전국 레스토랑 매장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벌인다.

행사에선 리치골드·치즈크러스트·크라운 포켓 등 프리미엄 피자와 베스트 피자를 한 조각 단위로 무제한 제공한다. 샐러드 키친· 탄산 음료 또한 100분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주중 점심은 9900원, 주중 저녁과 주말에는 1만2900원의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워킹맘 도와주는 'DIY 이유식'

프리미엄급 식재료에 조리도 간편해 인기

직장일과 가사를 함께 해야 하는 워킹맘들에게 자녀의 식사나 간식 해결은 늘 고민거리다. 더욱이 자녀가 어릴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최근 식음료 업계에서 이런 워킹맘들을 위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식품을 잇따라 출시해 관심을 끈다.

이유식 업계는 워킹맘이 퇴근 후, 또는 주말 이유식 조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엄격하고 까다로운 제조과정을 거친 '간편 이유식'을 출시하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이 선보인 '베이비밀 셀프쿠킹'(사진)은 '닭가슴살 콜리플라워죽 재료' 등 6개월부터 먹을 수 있는 중기 이유식 3종과 '한우청경채 무죽 재료' 등 8개월부터 먹을 수 있는 이유식 4종으로 불린 쌀에 셀프쿠킹 재료와 물을 넣어 끓이기만 하면 3끼 분량의 이유식을 만들 수 있는 간편한 제품이다. 이유식 필수 재료인 육류와 다양한 채소가 아이 발달 과정에 맞춰 크기별로 반조리 되어있어 만들기 편리하고, 조리 전 재료의 상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죽의 '베이비본죽 완료기 3종'은 생후 11~13개월 아이를 위한 된 죽 형태의 전복양송이죽·한우단호박죽·한우야채죽으로 구성돼 있다. 합성착향료·착색료·보존료를첨가하지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해 생산된 원료인 식물성 Lifes DHA(미국인증마크 획득) 성분을 첨가해 식품 안전성을 높였다.

베베쿡의 '냉동이유식 8종'은 급속 냉동기술을 적용해 유통기한이 길고, 데우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섭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영유아의 연령대를 7개월 이상과 9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각각 4개씩 총 8개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한우와 유기농 야채 등 안심 원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

매일유업의 '맘마밀 보글보글'은 월령별로 필요한 쌀과 야채의 크기를 조정해 손쉽게 집에서도 먹일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이유식 제품이다. 소아과 전문의의 꼼꼼한 영양 설계로 철분·칼슘·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한 재료를 사용해 아기 월령별 필요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주며, 뜨거운 물에 1~2분 정도 담그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바로 먹일 수 있어 편리하다.

/정영일기자

쌓여가는 체지방 줄이려면…

유산소 운동과 단백질·복합탄수화물 식사 권장

가을에는 식욕이 왕성해져 사람도 살이 찌기 쉽다. 일교차가 커 급격히 낮아진 기온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증가시키고, 우리 몸이 겨울을 대비해 체지방을 축적하려고 한다. 게다가 두꺼운 옷차림으로 몸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다이어트 의지가 한풀 꺾이는 시기다. 반면에 선선한 날씨 탓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크므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기에 최적의 계절이기도 하다.

◆3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먼저 체지방을 없애는데 적절한 운동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체지방은 같은 무게의 근육 대비 부피가 3배에 달한다. 체지방은 조금만 늘어도 군살이 많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식후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운동 시작 후 약 20분까지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몸 안에 축적된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쓴다. 결국 운동 후 20분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없어지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보려면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한다.

◆단백질·복합탄수화물 위주 식단

뇌 속 시상하부에는 식사 후 포만감을 느끼는 포만중추가 존재한다. 포만중추는 체온이 올라가면 자극을 받아 포만감을 높이고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한다. 식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평소 먹는 양의 4분의 3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짜거나 단 것, 기름진 음식은 식욕 자극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식단 조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주로 칼로리가 낮은 야채나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 가슴살 등을 챙겨먹도록 한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1시간 정도 후 대사율이 높아지기 시작해 체온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포만중추가 자극되는 시간이 길어져 공복감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한다.

이와 함께 짜거나 단 것, 기름진 음식은 식욕 자극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식단 조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주로 칼로리가 낮은 야채나 과일을 먹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설탕·시럽·흰 밀가루·흰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현미·고구마·견과류 같은 복합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정영일기자 prms@

이른 추위 내의 "잘 나가네~"

패션업체들도 '발열제품' 잇따라 선보여

지난주 때 이른 영하권의 날씨에 첫눈까지 내리면서 '겨울내의'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지난 10~17일 겨울내의 매출이 전주보다 약 2.5배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얇은 두께에도 뛰어난 보온성을 발휘하는 발열·체열반사 '기능성 내의류'는 해당 기간 매출이 3.5배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제임스딘에서 선보인 '와우웜 체열반사 내의'(사진)로, 전주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 이 제품은 체열반사 소재인 '메가히트RX'를 적용해 체내에서 발생한 열을 다시 피부로 전달하고, 외부의 태양열 또한 증폭시켜 열을 더욱 많이 흡수해 보온성을 높여주는 아이템이다.

퍼스트올로의 '모카 체열반사 내의'도 전주대비 3배 이상 판매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패션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발열내의를 쏟아내고 있다.

유니클로는 일찌감치 발열 의류 '히트텍'의 라인업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 남성과 유아동 상품은 땀을 빠르게 건조하는 기능을 강화했고, 여성용 상품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동백기름을 섬유에 넣어 매끄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탑텐은 땀을 열에너지로 전화시켜주는 흡수 발열 섬유를 사용한 기능성 발열 내의 '온에어'를 내놨다. 화이트·블랙·그레이 등 기본 컬러는 물론 파스텔·비비드한 색상까지 출시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관광산업 '스마트화' 절실하다

요우커 늘지만 IT 기반 인프라 부족

방한 외국인 관광객 1400만명을 앞둔 현재 국내 관광산업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관광업계는 '요우커'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 비해 우리 관광산업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총 468만3415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절반에 가까운 43.9%를 차지했다. 이미 일본인 관광객(283만6892명)을 크게 앞질렀으며 올해 600만 명 돌파까지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여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1위는 '인터넷'(61.8%)이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인터넷을 1위로 꼽았으며 방한 횟수가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다.

더욱이 여행사의 단체 패키지가 아닌 개별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직접 한국관광을 의뢰해 자신만의 코스를 만들어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코스모진여행사(대표 정명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IT 기반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명진 코스모진여행사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광정보 사이트와 안내 콘텐츠, 여행 후기가 부족한 점을 제일 아쉬운 점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인바운드 여행업계를 비롯한 국내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방한 외국인들을 위해 IT기술을 접목한 관광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스위스 패션 가방 '루블랑' 론칭

패션잡화 수입·유통사 브랜드메이트는 스위스 패션 가방 브랜드 '루블랑'을 국내에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루블랑은 스위스 속 작은 이탈리아로 불리는 '루가노'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패션 감각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브랜드로 천연 소가죽 사용한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로렌즈'와 위트 있는 스타일의 '라포르마', 모던한 감각의 '브리고',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을 추구하는 '뮤즈 글램' 등 총 5가지 라인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클러치백이 6만~9만원, 백팩·토트백·쇼퍼백이 11만~19만원선이다.

제품은 온라인 갤러리아몰과 AK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편집매장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070)8221-4577 /박지원기자

이대목동병원 '협력 병·의원장의 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7일 서울 시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제9회 이대목동병원 협력병·의원장'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등 협력 병·의원장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권 병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이 그동안 이룩한 성장과 발전은 여러 협력 병의원장님의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더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상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우수 협력 병·의원으로 선정된 홍익병원 라기혁 원장, 포미즈여성병원 정종일 원장 등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만찬과 함께 진행된 2부에서는 김한수(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이사라(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의 사회로 흥겨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지원기자

“골치 아픈 이야기? 따뜻한 접근도 의미 있죠”

‘카트’로 돌아온 배우 문정희

느낌 있는 이야기에 이끌려 선택
투쟁하는 노동자 자연스럽게 연기
영화가 세상 바꾸는 힘 또한 ‘공감’

지난 10월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마마’에서 열연을 펼친 문정희(38)가 11월 영화배우로 변신했다. 지난 13일 개봉한 ‘카트’에 이어 20일 개봉하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까지 일상적이면서도 친근한 캐릭터로 관객과 만난다.

그 중에서도 ‘카트’(감독 부지영)는 문정희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남은 작품이다. 감독과 제작자는 물론 주요 출연 배우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관객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소셜 펀딩을 통해 사회적인 주제를 담았다는 점 때문이다. 문정희는 “아련하고 좋은 추억이 됐다”며 ‘카트’에 출연한 소감을 전했다.

‘카트’는 대형마트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상업영화에서는 흔하지 않는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영화는 이를 ‘공감’이라는 코드로 무겁지 않게 풀어낸다. 문정희가 ‘카트’에 끌렸던 것도 바로 이 공감이라는 코드다.

“골치 아픈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면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보니 노동자와 회사가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쉽게 잘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한 엄마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공감이 많이 갔고요. 공감이라는 코드가 마음을 많이 움직였어요.”

영화에서 문정희가 연기한 혜미는 과거 정규직으로 일할 당시 직장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싱글맘으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혜미는 새로운 일터인 마트에서 또 다시 부당해고를 당하자 노동자들을 모아 회사와의 싸움을 이끌어간다. 영화는 적극적으로 투쟁에 임하는 혜미와 그런 혜미의 손에 이끌려 투쟁에 동참하는 선희(염정아)의 이야기로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풀어낸다.

혜미는 극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일상 속에 녹아든 자연스러운 연기가 중요한 캐릭터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배우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생길 법도 하다. 그러나 문정희는 “혜미는 구체적인 설명보다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연한 영화 ‘숨바꼭질’이 “캐릭터 자체가 중심이 되는 영화”라면 ‘카트’는 “영화적인 흐름으로 캐릭터를 채울 수 있는 영화”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연가시’와 ‘숨바꼭질’, 그리고 최근 종영한 ‘마마’까지 문정희는 작품마다 깊이 있는 감정들을 연기해왔다. ‘카트’에서는 그 정도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은 없지만 그럼에도 문정희의 연기가 빛나는 순간이 있다. 혜미가 투쟁 과정 속에서 아들이 다치자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다시 계산대에 복귀하는 장면이 그렇다. ‘동지들’을 뒤로 하고 계산대에 다시 선 혜미의 무표정한 얼굴을 통해 문정희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현실로 돌아온 감정”을 표현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

비 내리는 창문을 배경으로 혜미와 선희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데면데면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하고 연대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과거의 이야기를 툭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혜미가 선희를 처음으로 ‘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라 좋아요. 선희와의 충분한 유대를 통해 이번 투쟁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는 혜미의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요.”

평소에도 노동 문제와 같은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문정희는 “골치 아픈 소재를 지금처럼 복잡한 현실 속에서 굳이 수면 위로 꺼낼 필요가 있는지 반문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문화적인 코드로 조명해 따뜻하고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제작보고회에서 “영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혔던 그는 ‘카트’가 지닌 힘 또한 “공감”이라고 설명했다. 영화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들이 공감을 얻고 조명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카트’는 비단 마트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소시민으로서 사회 일원이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소수의 의견에도 애정이 생긴다면 사회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겠죠.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한준희)·디자인/김아람

서프라이즈 "아시아 팬 기다려라"

엑터테이너 위해 1년 공들여…"단독 공연이 꿈"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 씨네시티 엠큐브에서 열린 첫 번째 싱글 '5URPRISE 1st SINGLE-From my heart'의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가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알렸다.

서프라이즈는 배우 서강준, 유일, 공명, 강태오, 이태환 등 5명의 배우로 구성된 5인조 그룹이다. 국내 최초 배우 그룹이라는 타이틀로 공개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 다섯 명은 지난해 9월 드라마 '방과 후 복불복'으로 데뷔해 각자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 1년 만에 다시 뭉쳤다.

서프라이즈는 18일 서울 강남구 CGV 청담 엠큐브에서 쇼케이스를 갖고 첫 번째 싱글 앨범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번 앨범을 들고 다음 달 28일 일본 도쿄를 시작해 태국·홍콩·중국·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 투어에 나선다. 연기를 비롯해 예능과 음악 활동을 전개하며 '엑터테이너(연기자인 '액터'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로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활동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 싱글 앨범에는 타이틀 곡 '프롬 마이 하트'와 '점프' 등 두 곡이 수록됐다. 타이틀 곡은 SG워너비·이승철·오렌지캬라멜 등과 함께 작업한 히트메이커 조영수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아이유·브라운아이드걸스 등에게 노랫말을 선사한 김이나가 작사가로 참여했다.

타이틀 곡 '프롬 마이 하트'는 미디엄 템포의 어반 R&B 장르로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두 번째 수록곡 '점프'는 록을 기반으로 한 일렉트로닉 장르로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사가 돋보인다.

서프라이즈는 데뷔 후 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준비한 그룹이다. 리더 유일은 첫 작품 이후 이번 앨범 작업을 준비하며 그룹의 중심을 지켰다. 공명은 최근 토이의 '세사람'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서강준은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태오는 한국·베트남 합작드라마 '오늘도 청춘'에 주연으로 열연하며 베트남에서 대세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이태환은 MBC 드라마 '오만과 편견'에 출연해 안방을 찾고 있다.

서프라이즈의 이번 앨범은 철저히 아시아 투어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쇼케이스 자리에서 "아시아 6개국 투어가 목적"이라며 "음악 방송 출연이나 다른 가수와의 협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음악활동에 대해서는 욕심을 드러냈다.

서강준은 "앨범도 많이 내고 싶다. 음악적으로 경력이 쌓인다면 god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며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목표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꼭 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공명은 "일단 아시아 투어를 철저하게 준비해 무사히 마치고 싶다"며 "엑터테이너로서의 첫 번째 음반활동이다.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연기가 주전공인 배우들에게 노래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이에 유일은 "연기는 글자에 감정을 싣는다면 노래는 멜로디에 빠른 순간 감정을 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부족한 모습에 냉정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노력하는 서프라이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그리워라'로 돌아온 십센치

2년 만의 정규 앨범… 허세 빼고 담백함 담아

어쿠스틱 인디밴드 십센치(10㎝)가 2년 만에 세 번째 정규 앨범 '3.0'을 19일 0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십센치는 정규 앨범 발표 예고 이후 '솔직·발칙·찌질·엉큼·에로' 등이 담긴 독특한 제목의 트랙리스트와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한 티저 이미지 등을 공개해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선공개곡 '쓰담쓰담'은 공개되자마자 대형 기획사 가수들과 1, 2위를 다투며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십센치의 3집 타이틀곡 '그리워라'는 '그게 아니고' '파인 땡큐 앤드 유?'의 뒤를 잇는 십센치표 발라드 넘버다. 지나간 사랑을 덤덤히 소회하는 애잔하면서도 진솔한 노랫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외에도 3집 앨범 작업을 앞둔 느낌을 솔직하게 담은 '3집에 대한 부담감', 19금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담배왕 스모킹', 짝사랑의 애틋함을 노래하는 '스토커', 일탈의 욕구를 여과없이 드러낸 '아프리카 청춘이다' 등 총 10곡이 수록됐다.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측은 "십센치는 이번 3집을 통해 가장 십센치다운, 십센치만이 할 수 있는 감성을 담아냈다. 허세를 빼고 담백함을 더해 십센치스러운 앨범으로 완성했다. 요즘 가요계의 트렌드가 돼버린 콜라보레이션 작업이 전무한 십센치만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앨범을 가득 채웠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컴백 앞둔 니콜 프리뷰 영상 공개

컴백을 앞둔 가수 니콜(사진)이 18일 자정 자신의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첫 솔로 미니앨범 '퍼스트 로맨스'의 프리뷰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타이틀곡 '마마'와 '이노센트' '7-2=오해' '조커' '러브' 등 수록곡 5곡의 하이라이트 음원을 담았다. 그 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미공개 재킷 이미지도 담겨 있다.

아직 정식으로 앨범을 발매하기 전 앨범 수록곡 일부를 미리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측은 "니콜의 이번 앨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니콜은 19일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하며 같은 날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각종 음악 방송 출연 등으로 활발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박재범·사이먼디 첫 공동 무대

'카운트다운 서울 2015' 1차 라인업 이름 올려

가수 박재범(사진)과 사이먼디가 연말 음악 페스티벌인 '카운트다운 서울 2015'를 통해 첫 공동 무대를 펼친다.

'카운트다운 서울'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매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부터 1월1일까지 4000여 명의 팬들이 모여 음악을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31일 오후 11시부터 1일 오전 4시까지 총 5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발표된 1차 라인업에는 가수 박재범, 사이먼디, 산이, 비트버거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힙합 레이블 AOMG의 공동 대표인 박재범과 사이먼디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최초로 합동무대를 준비 중이다.

또한 올해 큰 활약을 펼쳤던 한국 힙합계의 랩 지니어스 산이, 그리고 현 SM엔터테인먼트 퍼포먼스 디렉터로 활동 중인 심재원과 록 밴드 스키조의 기타리스트 주성민, SM의 사운드 엔지니어 구종필이 함께 모인 일렉트로닉 음악그룹 비트버거가 참여해 연말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공연 주최사 CJ E&M 페스티벌사업팀 관계자는 "이번 '카운트다운 서울 2015'는 1차 라인업 못지않은 막강한 2차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다"며 "작년보다 더욱 화려한 무대로 연말과 새해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관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닥터 프로스트' 미생 열풍 이을까?

웹툰 원작 범죄 수사극…싱크로율 보다 '눈빛 연기'

송창의

OCN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가 '미생'에 이어 웹툰 원작 드라마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닥터 프로스트' 제작발표회에서 성용일 감독은 "'미생'이 극 초반부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라는 소재로 접근했다면 '닥터 프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는 심리학자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성장 이야기를 담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법한 심리를 소재로 한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닥터 프로스트'는 출연 배우들과 원작 웹툰 캐릭터의 싱크로율(일치율) 여부로 관심이 높았다.

송창의는 작품에서 백발의 천재 심리학자 닥터 프로스트 역을 맡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읽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마비돼 있는 인물이다. 만화에서는 날카로운 인상으로 표현된 캐릭터로 동글한 이목구비를 가진 송창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성용일 감독은 "날카로운 분위기만 추구하지 않았다. 송창의의 깊이 있는 눈빛이 닥터 프로스트를 표현하는 데 적절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캐스팅 이유를 설명했다.

송창의는 "1차원적인 만화 캐릭터가 드라마로 바뀌었을 때 공감가는 인물이 돼야 한다"며 "만화에서는 로보트처럼 표현돼도 드라마에서는 어느 정도 인간미가 느껴져야 한다. 닥터 프로스트가 '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왜'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지를 봐달라"고 덧붙였다.

성지루와 정은채.

배우 이윤지는 뇌가 섹시한 차가운 매력의 심리학 교수 송선 역을 맡았다. 원작 작가 이종범에 따르면 송선은 애초부터 이윤지를 모델로 했다.

그는 이날 "만화 속 송선과 똑같이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드라마가 웹툰을 토대로 각색된 부분이 있는 만큼 송선도 원작과 달라야 한다. 치밀하게 연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드라마를 통해 창조된 인물 남태봉 형사는 배우 성지루가 연기한다. 성용일 감독은 "웹툰 시즌3가 연재를 앞두고 있다. 시즌3부터는 형사가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한다"며 "원작자에게 성지루와 비슷하게 표현해 보자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 드라마에서 선보인 인물이 역으로 웹툰에 등장하는 재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닥터 프로스트'는 천재 심리학자 닥터 프로스트가 수사에 합류해 범죄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심리 수사극이다. 오는 23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이윤지

KBS '클래식 한류' 주목

KBS 클래식FM이 '2014 한국의 클래식, 내일의 주역들'을 주제로 한 음반을 발매한다.

클래식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음악가의 연주를 녹음해 4장의 음반을 제작,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입상하며 맹활약 중인 음악인의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한다. KBS 라디오 최초로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공개 방송인 만큼 클래식을 더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BS 클래식FM은 이번 콘서트 실황을 녹음 제작해 방송한다. 또한 제작된 음반을 ABU(아시아방송연맹)·EBU(유럽방송연맹)을 통해 세계 각 방송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의 클래식, 내일의 주역들' 프로젝트는 2013년~2015년 3년에 걸쳐 진행된다. 탁월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들에게 데뷔 음반 제작 기회와 함께 방송 콘서트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클래식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다. 내달 4일 오후 8시부터 KBS 클래식FM 채널에서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웹드라마 '연애세포' 흥행 행진

개봉 16일 만에 재생수 400만 돌파

지난 2일 공개된 웹드라마 '연애세포'가 16일 만에 본편 재생수 400만을 돌파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애세포'는 17일 기준으로 네이버 TV캐스트에서 총 11회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공개 3주차에 408만이라는 압도적인 재생수를 기록하며 웹드라마의 흥행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다. 16일 만에 본편 재생수 408만을 돌파한 만큼 꿈의 숫자인 1000만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애세포'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연애세포 고양이 네비(김유정)가 모태솔로 남마대충(박선호)과 톱스타 서린(남지현)의 로맨스를 위해 연애 속성 과외를 펼치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장혁·김우빈·김유정·박선호·남지현·백성현·오광록 등 남녀노소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또한 개성 충만한 캐릭터와 모태 솔로남의 상상초월 로맨스라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누리꾼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입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연애세포'는 총 15회로 구성돼 있으며 일요일부터 목요일 밤 12시에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

크리스마스에 찾아오는 '기술자들'

케이퍼 무비 정석·남남 케미 기대…김우빈 반전 매력 '먹성'

김우빈·이현우·고창석 주연의 영화 '기술자들'(감독 김홍선)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다음달 24일 개봉한다.

18일 오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는 김홍선 감독과 주연 배우 김우빈·이현우·고창석이 참석해 개봉을 앞두고 영화의 관전 포인트와 촬영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우빈은 이현우·고창석의 지지를 받아 반전 매력 '기술자'로 뽑혔다. 이현우는 "내가 알고 있는 김우빈은 멋있고 남성다운데 실제로는 애교가 많고 장난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창석은 '먹성'을 김우빈의 반전 매력으로 꼽았다. 그는 "(김우빈이) 모델 출신이라서 과일만 먹을 줄 알았는데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며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해 회사나 집에서 밥을 안 먹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해 웃겼다.

이에 김우빈은 "오늘도 말을 많이 했더니 살짝 배가 고프다"며 "많이 먹는 대신 운동을 한다. 친구 2명이랑 허브 삼겹살 12인분과 냉면 두 그릇을 먹어 본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영화 '기술자들' 이현우(왼쪽부터), 김우빈, 김홍선 감독, 배우 고창석. /연합뉴스

'기술자들'은 동북아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인천세관에 숨겨진 검은 돈 1500억원을 제한시간 40분 안에 털기 위해 모인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김우빈·고창석·이현우는 작품에서 분야별 최고 전문가인 '기술자'로 등장한다.

김우빈은 금고털이 기술자 지혁 역을 맡았다. 비상한 두뇌로 위조와 작전 설계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멀티 플레이어다. 고창석은 인력조달 기술자 구인으로 분한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화려한 인맥을 지닌 마당발이다. 지혁의 오랜 조력자로서 지혁이 설계한 작전에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현우가 연기한 종배는 서버해킹 기술자다. 곱상한 외모와 다른 거친 언행을 내뱉는 인물이다.

세 배우는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속도감'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김우빈은 "다 보고 나면 유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영화에는 여배우 조윤희도 출연한다. 이현우는 "조윤희가 우리 영화의 꽃을 담당했다. 남성 관객도 그의 매력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는 '공모자들'로 제33회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김홍선 감독의 차기작이다. 김홍선 감독은 "케이퍼 무비(범죄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강탈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하는 영화)의 짜릿함을 좋아한다"며 "전작 '공모자들'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이야기여서 케이퍼 무비를 약간 변형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자들'은 오락성을 강화한 케이퍼 무비 그 자체"라고 소개했다. 내달 24일 개봉.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이광수 '돌연변이' 캐스팅

첫 주연 도전… 신인 권오광 감독 작품

배우 이광수가 영화 '돌연변이'에 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최근 영화 '좋은 친구들'과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이광수는 '돌연변이'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돌연변이'는 칸영화제에서 단편부문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한 영화 '세이프'의 각본을 쓴 권오광 감독의 작품이다. CJ E&M의 신인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선정작이자 CJ E&M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이 함께 진행하는 산학협력 1기 작품이다.

최근 출연작에서 실감나는 열연을 펼쳤던 이광수는 '돌연변이'를 통해 또 한 번 인상적인 연기로 관객들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돌연변이'는 올 하반기 중 크랭크인해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조여정·클라라의 '엉뚱한 동업'

'워킹걸' 내년 1월 개봉 확정

배우 조여정, 클라라 주연의 영화 '워킹걸'이 내년 1월 개봉을 확정했다.

'워킹걸'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커리어우먼 보희(조여정)와 폐업 일보 직전의 성인숍 사장 난희(클라라)의 엉뚱한 동업 스토리를 그린 섹시 코미디 영화다.

조여정은 보람·쾌감·만족을 회사 실적에서만 느끼는 완벽주의자 보희 역을 맡았다. '방자전' '후궁: 제왕의 첩' '인간중독' 등 다양한 작품에서 과감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 조여정은 그동안 섹시한 이미지로 사랑 받았다. '워킹걸'에서는 가정과 사회 생활을 완벽하게 병행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색다른 연기를 보여준다.

클라라는 항상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하고 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지만 정작 사랑을 두려워하는 난희 역으로 스크린을 찾는다. 캐릭터의 이면까지 표현해내며 영화배우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태우·김보연·라미란·조재윤·배성우·고경표 등이 조연진으로 가세해 영화에 감초 같은 재미를 더했다. 연출은 '기담'의 정범식 감독이 맡았다. /장병호기자

디즈니 첫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화

'숲속으로'…메릴 스트립·조니 뎁 출연

디즈니가 최초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화한 '숲속으로'가 다음달 24일 개봉한다.

'숲속으로'는 마녀의 저주를 풀려는 베이커 부부와 그림형제 동화 속 등장인물들이 숲 속에서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원작은 1986년 초연된 동명의 뮤지컬이다. 기발하면서도 독특한 소재로 화제를 모았다. 토니 어워즈 작곡상·극본상·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뮤지컬로 자리매김했다. 익숙한 캐릭터와 신선한 소재로 브로드웨이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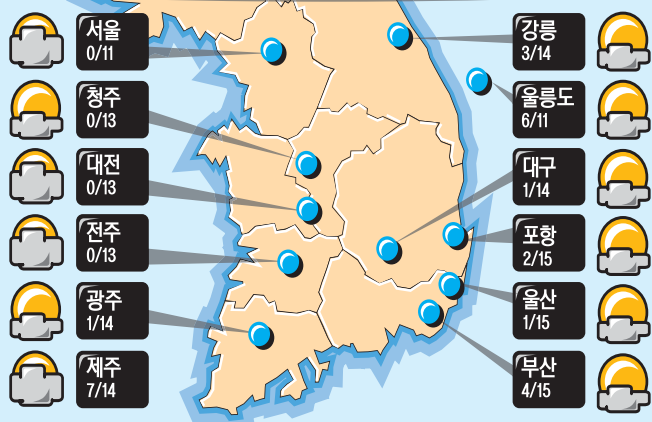
그 동안 여러 차례 영화화를 시도했으나 뮤지컬의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를 스크린에 담아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에 그쳤다. 마침내 영화화된 '숲속으로'는 '시카고'의 롭 마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원작과 차별화된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원작 뮤지컬 음악 감독이었던 스티븐 손드하임과 극본가 제임스 라핀, 인기 뮤지컬 '위키드' 제작진이 참여해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감동을 스크린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 메릴 스트립·조니 뎁·에밀리 블런트·크리스 파인 등이 출연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날씨

11/19 水 일출시각 07:15 일몰시각 17: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가슴이 답답하고 가랑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면 천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시에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4				8	1	
		9		8	5			
						6	2	
	6			2			8	
	5	3						
			1	7		4		
	9	6				5		
					9			2

5			2	8				9
				5	7	8		
						4	1	
	6	2	7					
					6	3	9	
	2	8						
		4	6	2				
6				4	9			3

스도쿠 정답

3	8	2	9	4	1	7	5	6
5	7	4	3	6	2	8	1	9
6	1	9	7	8	5	2	3	4
7	4	8	5	9	3	6	2	1
9	6	1	4	2	7	3	8	5
2	5	3	6	1	8	9	4	7
8	2	5	1	7	6	4	9	3
1	9	6	2	3	4	5	7	8
4	3	7	8	5	9	1	6	2

5	1	6	2	8	4	7	3	9
4	9	3	1	5	7	8	2	6
2	8	7	9	6	3	4	1	5
3	6	2	7	9	8	5	4	1
1	4	9	5	3	2	6	8	7
8	7	5	4	1	6	3	9	2
9	2	8	3	7	5	1	6	4
7	3	4	6	2	1	9	5	8
6	5	1	8	4	9	2	7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결혼 3년차 시부모님께 서운한 감정 그러려니 하고 흘려넘기는게 답이죠

Q Hey 캣우먼!
저는 결혼 3년차, 18개월 아기를 둔 주부입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께 서운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아기를 한 팔에 안고 한 손으로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는 제 쪽에 있던 음식을 시누이 쪽으로 옮긴다던가, 시어머니는 제 생일은 모르시면서 아들 생일은 챙기라고 미리 연락만 하십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서운함을 남편에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며느리 자유선언

A Hey 며느리 자유선언!
신랑의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될 수 없으며 나 역시 그들의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부터 결혼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자식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자식 같은 효녀 노릇도 그만큼 해야 하는 건데 그럴 바엔 차라리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며느리의 입장이 낫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내 생일을 알고 챙겨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번잡스러운 간섭 아닙니까?
분명히 말해두죠. 시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당신도, 그들의 어린 손주도 아니고, 오로지 자식인 남편과 시누이인 것입니다. 특히 지금 18개월의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어서 시댁 식구들의 무신경한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쉽지만 일단 결혼을 했다 하면 시댁식구가 그 어떤 세련되지 못한 행동을 하든간에 그것을 흘려 넘길 정도의 멘탈이 필요합니다.
시부모님께 인정이나 애정을 바라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매달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솔직히 같이 안 사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시부모님은 근처에 사는 기본적인 예의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는 아파트 이웃 어르신의 느낌으로 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살면서 가장 영양가 없는 게 시댁 스트레스이며 이 정도 거슬림은 그러려니 놔둬도 되는 레벨. 꽝꽝.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빌려준 돈 못받고 다른 직업 생각중 돈받기 포기하고 재단 홍보 일 가능

Q hynin 남자 46년 10월 10일 음력 저녁

재작년에 선생님을 뵙고 사주상담을 할 때 돈이 생기면 무조건 땅이나 부동산에 묻어두고 이성에 대해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새삼스럽게 떠올려집니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대신 청소하며 관리를 해주는 60초반의 아르바이트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행방불명이 되어서 수소문을 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언제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을 까요? 독서실도 잘 안되어 걱정이고 노후 대책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중 다단계가 아닌 비영리 홍보 봉사재단이란 데서 우리나라의 혼탁한 장례문화를 바꾸는 일을 하려는데 잘 될까요?

A 귀하의 성정은 '쇠가 불에 녹아 물이 되는 형상'으로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상당히 여린 면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 냉철하고 높은 이상을 품지만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강기(剛氣)와 냉정한 면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부되고 장애가 됩니다. 속으로는 엉큼한 기질이 있고 이성에 유혹에 빠지기 쉬워 종종 다른 여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이 신사(辛巳)일주인데 음력 10월에 태어나 정인격(正印格)으로 인품이 비르고 신사 타입이지만 부부궁에 귀문살(鬼門殺: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의 흉함)이 작용하고 62세 때 부인궁에 세운에서 흉한 기운으로 사별운이 있었습니다. 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애인이나 비정상적인 금전을 나타냄)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라 이성을 조심하고 금전적인 투자나 거래를 하지 마시라고 재작년에 상담 드린 것인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잊은 까닭에 지금과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니 꿔준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도 귀하가 여자분에게 돈을 꿔 줄 정도로 가깝게 지낸 터라 값을 치른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현재 사업운이 노년까지 계속 포태법상으로 크게 발복할 운이 아니므로 독서실을 정리 하고 정편관(正偏官: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관직이나 회사 봉급생활을 나타냄)이 승발하는 운으로 가고 있으므로 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을 해야합니다.
비영리 홍보재단은 사업이 아니므로 귀하와 같은 정인격 사주로서는 적합합니다. 그동안의 인맥과 경륜과 지식을 갖고 홍보일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니 비영리 재단의 일에 무게를 둬가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19일 (음 윤 9월 27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60년생** 직장인은 칼바람부터 피하라. **72년생** 삶에 활력소 될 정보를 얻는다. **84년생** 엄살 부리는 경쟁자를 조심할 것.

49년생 나이 잊고 도전해 보자. **61년생**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긴다. **73년생** 조직의 죄가 되는 꼼수 삼가라. **85년생** 좋은 아이디어에 박수 쏟아진다.

50년생 일에 손 놓으면 일찍 늙는다. **62년생** 문서일은 재검토 할 것. **74년생** 두 갈래 길서 고민하는 격이다. **86년생** 상사의 황당한 지시에 황당하구나.

51년생 불쾌한 통보에 부글부글~. **63년생** 새로운 변화를 주면 좋다. **75년생** 주변의 여론에 귀 기울여라. **87년생** 우연히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앉는다.

52년생 맞대응은 감정싸움 된다. **64년생** 한없이 부러웠던 꿈에 빠져 보라. **76년생** 자영업자는 탐나는 인재를 찾는다. **88년생** 연인의 욕심에 슬퍼지는구나.

53년생 대접 받으려면 말 아껴라. **65년생** 땀이 없는 기쁨은 잠시다. **77년생** 목돈 쓸 경사가 생기니 대비하라. **89년생** 한 가지만 몰입해야 성공한다.

42년생 알던 얼굴이 자꾸 줄어 눈물 난다. **54년생** 사람에 희망 걸어라. **66년생** 기다린 일은 성사 된다. **78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최선 다하라.

43년생 공돈이 생기니 기대하라. **55년생** 모처럼 설레는 일 생긴다. **67년생** 부동산 떳다방의 감언이설 조심할 것. **79년생** 냉대 받던 사람은 새 세상 맞는다.

44년생 뜻밖의 갈등 불거진다. **56년생** 능력 밖의 일은 관심 꺼라. **68년생** 돈 아끼려다가 체면만 구긴다. **80년생** 동반자와 함께 달리도록 노력할 것.

45년생 남의 일 간섭 삼가라. **57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69년생** 오랫동안 공들인 일은 성공예감~. **81년생** 한 가지에 주력해야 승산이 있다.

46년생 자녀 덕에 후한 대접 받는다. **58년생** 생각의 균형감 유지하라. **70년생** 어렵지만 그래도 길은 있다. **82년생** 상사의 눈치 적당히 보는 척 할 것.

47년생 벗과 이별을 아쉬워 말라. **59년생** 남의 일로 바쁘게 움직인다. **71년생** 아픈 사람의 벗이 되어라. **83년생** 위기 탈출할 묘안이 없어 답답하다.

박인비 vs 루이스, 시즌 마지막 대회서 결판

LPGA 올해의 선수·상금왕 놓고 진검 승부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와 2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자리를 놓고 최후의 한 판을 벌인다.

지난해 한국 선수 중 최초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박인비는 올해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2012년 수상자인 루이스는 박인비에게 빼앗긴 타이틀 탈환을 노린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2014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주인공이 가려진다.

스테이시 루이스

한 시즌 동안 LPGA 투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롤렉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의 주인공은 박인비와 루이스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재미동포 미셸 위가 3위에 올라있지만 166점으로 이 둘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현재 이 부문 1위는 229점을 쌓은 루이스다. 하지만 박인비가 226점으로 루이스의 뒤를 3점 차 맹추격하고 있다. 상위권 진입이 예상되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3점차의 격차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박인비는 직전에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단독 3위에 오르며 12점이던 루이스와의 포인트 격차를 3점 차로 좁혔다. 루이스는 이 대회에서 공동 28위에 그치며 포인트를 따지 못했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각 대회 1~10위에 오른 선수에게 최소 1점에서 최대 30점을 부여한다. 만약 이번 마지막 대회에서 박인비가 8위(3점)에 오르고 루이스가 10위권 밖(0점)으로 밀려난다면 포인트는 동점이 된다. 박인비가 우승하거나 루이스보다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오른다면 역전의 길은 얼마든지 열린다.

둘의 상금왕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시즌 상금 1위는 250만2309달러를 모은 루이스, 2위는 220만9460 달러로 박인비가 랭크돼 있다.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걸린 총 상금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원) 중 우승 상금 50만 달러(약 5억 5000만원)를 가져가는 선수가 상금왕도 거머쥐게 된다.

이와 함께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보너스 상금이 걸린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 우승자도 이 대회에서 결정된다. 현재 이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는 박인비와 루이스를 비롯해 올해 LPGA 투어 신인왕을 따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미셸 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펑산산(중국),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최운정(24·볼빅), 카리 웨브(호주) 등 9명이다.

박인비

한편 지난 2011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 박희영(27·하나금융그룹)과 2012년 우승자 최나연(27·SK텔레콤), 2013년 우승자 펑산산도 이번 대회에 나선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을 확정한 백규정(19·CJ오쇼핑)은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하나외환 챔피언십 우승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출전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거품조짐 FA시장과 경제논리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FA 시장이 열렸다. 올해는 21명의 선수들이 시장에 나왔다. 삼성 우완 투수 윤성환과 안지만, 롯데 좌완 장원준, SK 내야수 최정과 외야수 김강민 등이 대어급이다. 이번에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윤성환과 안지만은 한국시리즈 4연패를 이끌며 가치가 상승했다. 윤성환은 34살로 나이가 있지만 한 해 10승이 가능하고 큰 경기에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안지만은 내년부터는 최강의 소방수 등극을 예고하고 있다.

장원준은 올해도 꾸준한 활약을 했고 일본 구단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정은 수비와 공격력을 겸비한 내야수로 인정을 받고 있다. 김강민은 수비와 어깨, 방망이까지 삼박자를 갖춘 선수로 평가가 높다.

5명 모두 어떤 팀에 가더라도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몸값에서도 작년 역대 최고액(75억 원) 포수 강민호를 웃돌 수 있을까? 확신은 어렵지만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강민호가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심정수가 삼성에 입단하면서 60억원을 받자 두산 김동주는 2007년 겨울 그 이상을 달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2012년 롯데 김주찬이 KIA로부터 58억원을 받자 2013년 이용규와 정근우는 60억원을 훌쩍 넘겼고 강민호의 최고액까지 치솟았다.

장원준, 윤성환. /연합뉴스

수요가 많아진 것도 몸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하위권 한화와 KIA는 투수력 보강이 절실하다. 신생 구단 kt도 FA 시장에서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LG는 항상 FA 시장의 큰 손이었다. SK, 삼성, 롯데는 집토끼를 잡으려면 베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중견 FA의 몸값도 기본이 30억원이다.

FA 선수들은 행복하지만 우려하는 눈길도 있다. 어느 수도권 구단의 단장은 "수요가 많아 몸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거품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역대 FA 들의 성적표를 본다면 효율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도무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투자가 많다는 설명이다. 차라리 그 돈을 육성에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지론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신고선수 출신 서건창, ★ 되다

MVP 선정…새역사 써
최우수신인 NC 박민우

넥센 히어로즈의 신고선수 출신 서건창(25)이 2014년 한국 프로야구를 빛낸 최고의 선수가 됐다. NC 다이노스의 박민우(21)는 최우수 신인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서건창은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최우수 신인선수 및 부문별 시상식에서 MVP로 선정됐다.

프로야구 취재기자단 투표 결과 서건창은 총 유효표 99표 중 77표를 얻어 박병호(13표), 강정호(7표) 등 팀 동료를 압도적 표차로 제치고 최우수선수 영예를 얻었다.

서건창은 올해 210안타를 치며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200안타를 넘어섰고 최다 득점(135개) 신기록도 세우는 등 한국 프로야구사를 새로 썼다. 그는 타율(0.370)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도루(48개) 3위, 출루율(0.438) 4위에 오르는 등 넥센의 톱타자로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2008년 신고선수로 LG 트윈스에 입단한 서건창은 그해 한 타석에 들어서 삼진을 당한 게 1군 성적의 전부였다. 이후 일반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넥센에 입단 테스트를 받고 또다시 신고선수로 프로 무대를 밟았다. 그의 신화는 2012년 신인왕을 차지하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부상과 슬럼프로 주춤했지만 절치부심한 끝에 올해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다.

최우수 신인선수는 NC 다이노스의 내야수 박민우에게 돌아갔다. 박민우는 71표를 얻어 넥센의 조상우(15표), 삼성의 박해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MVP, 최우수 신인선수 및 각 부문별 시상식'에서 MVP를 수상한 서건창(왼쪽·넥센)과 최우수 신인선수상을 수상한 박민우(NC)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3표)을 크게 앞섰다.

휘문고 출신으로 2012년 신인선수 지명 회의에서 1라운드로 NC 유니폼을 입게된 박민우는 지난 시즌 1군에서 32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하지만 프로 데뷔 2년째인 올해 NC의 톱타자 겸 주전 2루수로 활약하며 팀의 최초 포스트시즌 진출에 힘을 보탰다.

박민우는 이번 정규시즌 11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8(416타수 124안타)에 1홈런, 40타점, 87득점을 기록했고 도루는 50차례나 성공해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18일

팀	점수	점수	팀
LIG손해보험	3	1	대한항공

프로농구 전적 18일

팀	1Q	2Q	3Q	4Q	합계
KT	35	21	15	21	92
오리온스	15	15	20	16	66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